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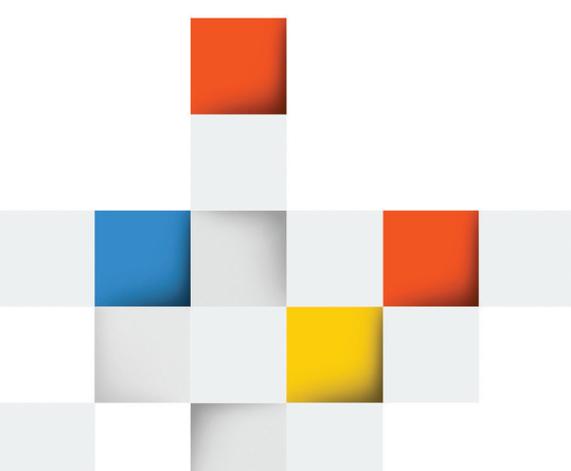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코로나19 이전 증가추세였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참가율이 크게 꺾이면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연령별로 20대 청년은 남녀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의 부침을 겪었다.
- 고용률 역시 전년 대비 전반적인 감소를 보였고, 시기별로는 2020년 연말에, 연령별로는 20대 남녀의 고용 감소가 가장 컸지만, 30대 고용둔화도 특기할 만하다.
- 2020년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실업률 상승을 주도하였다. 큰 비중의 비경제활동인구층이 있는데도 여성 실업률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이유는 가구소득 보전을 위해 활발해진 구직활동, 위기시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의 특성 때문이다.
- 종사상 지위별로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부침이 컸던 층은 임시직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음식·숙박업에 충격이 가장 컸으며,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사회행정 분야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다.
- 전반적으로 4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감소하고 36~44시간 노동이 증가했다. 17시간 미만 불완전 노동의 증가도 눈에 띈다. 임금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직종별, 성별 임금격차는 큰 변화가 없다.
- 팬데믹 국면에서 주목된 유연근무는 2019년 10.8%에서 2021년 16.8%로 증가했다. 유연근무형태별로는 비대면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8월 4.3%에서 2021년 8월 32.3%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면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불확실 속에 부침을 거듭했다. 1차 및 2차 대유행과 함께 방대한 고용유지 프로그램이 집행되고 조직과 개인의 방역 역량이 축적되면서 2020년 하반기 노동시장은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0년 말~2021년 초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노동시장은 1차 대유행기보다 더 깊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2021년 1월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취업자 감소율을 기록했다(-3.7%). 그러나 다행히도 백신개발을 통한 집단면역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경기회복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2021년 3월 이후 노동시장은 2019년 동월 취업자 수를 회복할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었다.

반복되는 위험과 장기화된 위기로 많은 근로자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처한 상황, 속한 집단에 따라 위험의 정도는 크게 달랐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도, 이전의 경제 위기와는 달리 집단 해고 등 고용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규직 노동시장에 큰 요동은 없었다. 지난 20여년간 구조조정으로 날렵한 조직을 만들어 온 대다수 기업들은 주로 신규 채용 억제, 계약직 중심의 조정으로 이번 위기에 대응한 듯 보인다. 장년보다는 청년이,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더 큰 타격을 받은 이유다.



또한 고용문턱이 낮았던 대면 서비스 부문은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밀려난 사람들과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로 혼잡해지고 일자리가 축소되어 어려움이 커졌다. 대표적으로, 숙박음식업은 2020년 2/4분기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3% 폭등했다.

올해 노동동향은 장기추세보다는 코로나 발발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월별 노동시장 추이로 시야를 좁혀 코로나19 국면의 노동시장 변화를 살피는데 집중한다. 2021년 3월 이후의 여러 고용 지표는 2020년 대비 회복을 가리키고 있지만, 기저 효과를 고려해서 2019년 동월과 비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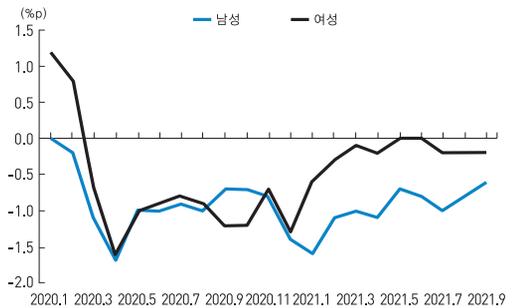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증감

코로나19 팬데믹의 본격화 이전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증가세를 견인하던 여성 참가율이 크게 꺾이면서 이러한 추세를 단번에 뒤집었다. [그림 V-1]이 보여주듯 2021년 5-6월 여성 참가율이 일시적으로 회복한 것을 제외하면 코로나 국면 내내 2019년 동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갑작스런 충격이 왔던 1차 대유행기, 그리고 장기화의 두려움과 단기고용계약자 정리가 집중되었을 연말 3차 유행기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코로나 집단감염 정세기에는 노동시장도 따라서 호전되었다. 집단 간 증감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예컨대

성별 차이는 코로나 집단감염의 극성기보다는 회복기인 9-10월, 2021년에 두드러졌다. 참여율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20.1-2021.9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p)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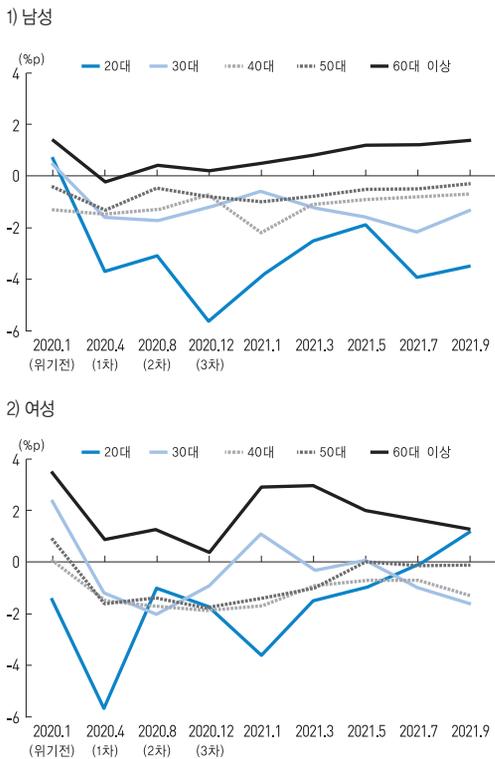
[그림 V-2]와 같이 연령별 추세를 더해보면, 20대와 60대가 가장 큰 부침을 겪었다. 예컨대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차 대유행기였던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각기 2019년 동월 대비 5.6%p, 3.9%p 감소했다. 감염병 장기화 국면에서 청년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축소는 기업의 신규채용동결과 더 나은 일자리를 기다리기 위해 취업을 지연시키려는 청년의 결정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청년의 경우에도 여성 20대의 경제활동 참여 패턴은 다소 모습이 달랐다. 고용 유연화 정도가 높은 이들의 노동시장은 감염병 극성기와 회복기 등 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진폭이 큰 움직

임을 보였다. 한편, 30-50대 노동시장은 경기변화에도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의사가 없이 '쉰' 인구가 2021년 8월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6만여 명 감소했지만, 30대에서 1만 9천명 늘었다는(31만 8천명) 점은 주목을 요한다. 20-50대 중 유일하다. 직업경력과 가족형성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30대 노동력 중 '그냥 쉰' 사람들의 증가는 팬데믹 노동시장의 우려스러운 단면이다.

[그림 V-2] 주요 시기의 성 및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20.1-20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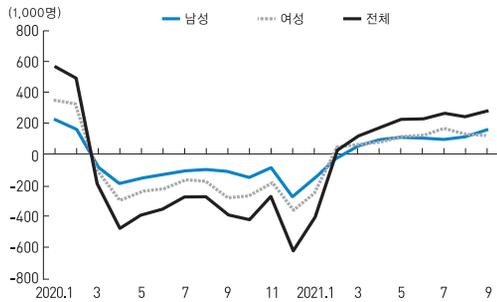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p)임.
 2) 2020년 1월은 코로나19 위기 전, 2020년 4월은 1차 대유행기, 8월은 2차 대유행기, 12월은 3차 대유행기에 해당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V-3]은 취업자 수 증감을 나타낸다. 2020년 내내 그리고 3차 대유행이 지속된 2021년 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는 지속되었다. 감소 폭은 남성보다 여성이 컸다. 어느 정도 안정기였다고 할 수 있는 2020년 9월과 10월에도 여성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각기 28만 3천여 명, 27만여 명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전체 취업자가 2019년 상황을 회복한 것은 3차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심리가 커진 2021년 2월 이후 시점이다. 단, 연령별로 30대는 취업자가 줄어 전반적으로 고용지표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림 V-3] 성별 취업자 수 변화, 2020.1-2021.9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의 변화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고용률과 실업률

2020년 연간 고용률은 남성 69.8%, 여성 50.7%로 2019년 대비 남녀 모두 0.9%p 감소했



다.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남성이 0.1%p 감소하고 여성이 0.7%p 상승했던 것을 상기하면, 추세적으로는 여성이 더 현저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표 V-1〉을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 고용률이 감소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의 고용 감소가 각각 -2.6%p, -2.2%p로 가장 컸다. 그 외에 연간통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 40대(-1.2%p), 여성의 경우 50대(-1.7%p)의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의 극성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월별 통계를 보면, 3차 대유행기 고용 감소가 남녀 모두 가장 컸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12월에 -1.7%p, 2021년 1월에 -2.6%p 감소하였다. 심리적 충격이 컸던 1차 대유행기(2020년 4월)의 -1.4%p이나 2차 대유행기(2020년 8월)의 -1.0%p 감소에 비해 고용률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2021년 들어 고용률은 1/4분기 58.6%로 전년 대비 -1.3%p, 특히 여성의 경우 50% 밑으로 떨어져 충격을 주었으나 2/4분기 61%(남성 70.4%, 여성 51.9%)로 2019년 2/4분기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2021년 올해 극성기(1월)와 회복기(6월)의 고용률에서 눈여겨 볼 것은 30대 남성의 고용률 저하 경향이다. 30대 남성은 극성기였던 2021년 1월에 이어, 회복기에 해당하는 6월에도 2019년 동월 대비 -1.6%p 고용률 감소를 유지했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 남성 청년층의 경우에도 위기의 장기화 국면에서 괜찮은 일자리

가 축소되면서 고용률 회복이 더뎠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경기에 훨씬 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3차 극성기인 1월 20대 청년 여성의 경우 고용률 감소가 -4.1%p에 이르렀으나, 회복기에 해당하는 6월에는 2019년의 고용률을 상회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기보다 일자리 질이 낮더라도 고용되는 편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집중된 서비스 일자리의 유동적 특성이나, 배달서비스 등 비임금 일자리 증가가 남성에게 많았던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숙박, 음식, 사업/개인 서비스 일자리 축소가 계속되면서 40대 및 50대 여성 고용률은 쉽게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20-2021.6

	2020년		2021년 1월		2021년 6월							
	고용률 (%)	2019년 대비 증감 (%p)	고용률 (%)	2019년 동월대비 증감 (%p)	고용률 (%)	2019년 동월대비 증감 (%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69.8	50.7	-0.9	-0.9	67.4	47.7	-2.0	-1.7	70.6	52.3	-0.5	-0.1
20대	54.7	56.8	-2.6	-2.2	52.0	55.7	-3.6	-4.1	56.0	60.2	-1.0	1.5
30대	88.1	61.3	-0.9	-0.7	87.1	60.6	-1.6	0.1	88.1	61.6	-1.6	-0.7
40대	89.9	63.8	-1.2	-1.4	89.1	62.8	-2.4	-1.9	90.2	64.8	-0.8	-0.9
50대	85.5	63.1	-0.6	-1.7	84.2	61.0	-0.9	-2.4	86.2	64.7	-0.3	-1.2
60대 이상	53.0	33.8	0.7	1.2	47.8	27.0	-0.4	0.9	54.6	36.3	0.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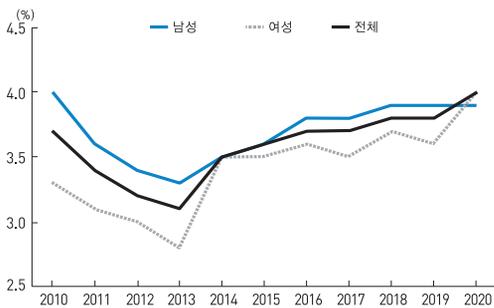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월.

2020년 연간 실업률은 2019년의 3.8%에 비해 0.2%p 높아진 4.0%였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2020년 실업률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여성이었다

는 점이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해서 3.9%로 실업률 변화가 없었던 남성과 달리, 여성은 2018년 3.7% 2019년 3.6%에서 2020년 4.0%로 코로나 국면에서 비교적 높은 실업률 상승을 경험했다.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 실업률이 포착된 것도 처음이다. 한국의 여성 실업률은 높은 비중의 비경제활동인구에 반해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림 V-4]가 보여주듯이 최근 5년간 공식 실업률의 성별 격차가 좁혀졌고, 코로나 국면에서 기존의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구 소득보전 요구가 여성의 구직활동을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위기 시 특성이 모두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4] 성별 실업률 변화, 2010-202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V-5]는 이 같은 성별 실업률 추세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보여준다(2020년 1월-2021년 9월). 알려진 대로 위기국면에서 남성과 여성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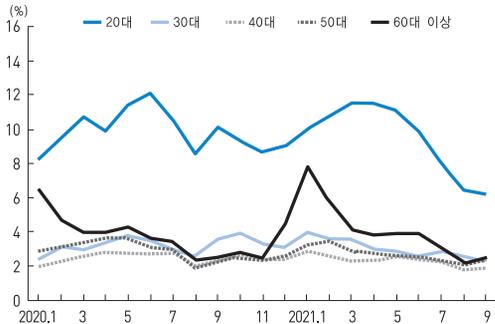
두 20대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20대 남성의 경우 2020년 1월, 8월 및 11월을 제외하고 줄곧 9-12%의 높은 실업률을 지속했다. 전년 대비 실업률 증가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의외로 팬데믹 소강기였던 2020년 9월과 10월 (각기 2.0%p와 1.8%p)이었다. 예년에는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용으로 흡수되던 실업이 위기국면에서 신규일자리, 좋은 일자리 공급 축소로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는 낮은 7-9%대를 유지했다.

30대 여성 실업률 증가는 특히 눈여겨볼 현상이다. 전체 3.9%, 특히 30대 초반 남성 3.7%에 비해 0.9%p 높은 4.6%에 달했다. [그림 V-5]의 하단에 제시된 여성 연령별 실업률 변화를 보면, 2020년 후반부터 30대 여성 실업률 상승이 뚜렷하다. 집중 육아기에 해당하는 30대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지 않는 실업자 증가 현상은 기존의 돌봄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과 양상을 달리한다. 이 밖에도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 3.3%(남성 2.9%), 40대 초반 3.1%(남성 2.5%), 50대 초반 3.2%(남성 2.4%)로 남성보다 실업률이 높은 연령집단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팬데믹에서 여성의 취업률 위축을 돌봄위기에 따른 공급철회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위기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축소된 일자리 문제도 동시에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2021년 2/4분기 들어 노동시장이 안정되면서 30대 여성의 5월 실업률은 [그림 V-5]와 같이 4.0%로 다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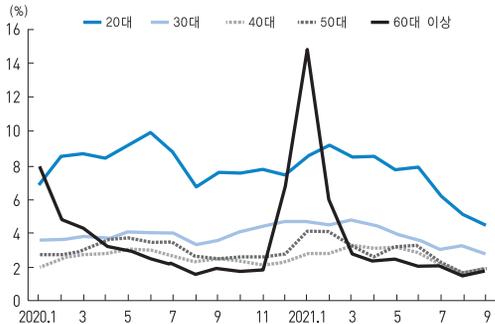


[그림 V-5]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변화, 2020.1-2021.9

1)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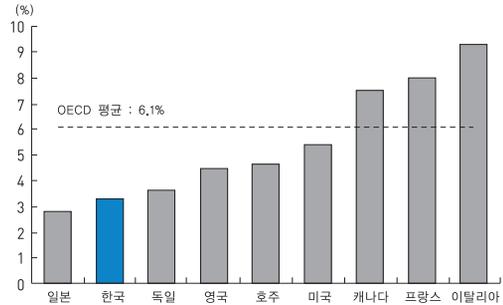
2) 여성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코로나19가 한국 고용시장에 미친 충격이 여타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덜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실업률은 대체로 예년 수준에서 유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V-6]의 최근 OECD 회원국의 통계를 보면, 2%대의 일본, 3%대의 독일 등과 함께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낮은 실업률을 관리해온 경우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초기 13-14%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6%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그림 V-6] OECD 주요 국가의 실업률, 2021.7



출처: OECD, UnEmployment Rate, 2021.7.

공식 실업률로만 보면 코로나19 국면의 한국 노동시장은 상대적 안정성을 잘 유지해왔다. 하지만, 통계청이 제공하는 각종 고용보조지표가 제시하는 상황은 조금 다르다. 예컨대, 공식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잠재경제활동인구가 2021년 1월 222만여 명에 달했다.

<표 V-2> 각종 고용보조 지표 추세, 2019-2021.9

	고용보조 지표1 (%)	고용보조 지표2 (%)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1,000명)	잠재 경제활동 인구 (1,000명)
2019년	6.4	9.3	750	1,703
2020년	7.8	10.0	1,088	1,873
2021년				
1월	10.0	12.8	1,175	2,222
5월	7.9	9.8	1,124	1,859
9월	6.3	8.6	1,033	1,853

주: 1) 고용보조지표1=(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3)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4)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5)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 희망/가능자인 '잠재구직자'를 합한 인구.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월.

2019년에 비해 약 50만 명 증가한 수치다. 고용 보조지표1과 관련된 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즉 소득이 충분치 않은 불안전 고용층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취업자 구성

코로나19 국면에서 노동시장 부침이 가장 현저했던 집단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직,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440만 명에 달했던 임시근로자는 1차 대유행기(3-4월)에 13만 5천명 줄었다. 5월부터 11월까지 1차 대유행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3차 대유행기인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는 2020년 11월에 비해 각각 38만 3천 명, 87만 8천 명 급감했다. 반면, 아래 [그림 V-7]이 제시하듯 상용직

[그림 V-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2020.1-2021.9



주: 1) 통계치는 전월 대비 취업자 수의 변화(1,000명)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은 2020년 4월의 14만여 명과 9월의 12만여 명 축소를 제외하면 큰 부침을 보여주지 않는다. 팬데믹 국면에서 사용자들이 주로 임시직 수의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왔음을 확인케 한다. 임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은 위기와 함께 한층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표 V-3>을 통해 팬데믹 이후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자. 비정규직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폭 줄었으나 2021년 2%p 이상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6.3%으로부터 2021년 38.4%로(남성: 29.4%에서 31.0%; 여성: 45.0%에서 47.4%) 증가해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가 약 9만 4천명 줄어든 것과(2020년 1,302만 명에서 2021년 1,293만 명) 대비된다. 이는 2021년 경기 회복과 함께 늘어난 일자리가 주

<표 V-3>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수 변화, 2019-2021

	비정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기간제		
(1,000명)					
전체					
2019	7,481 [36.4]	4,785	3,799	3,156	2,045
2020	7,426 [36.3]	4,608	3,933	3,252	2,073
2021	8,066 [38.4]	5,171	4,537	3,512	2,278
남성					
2019	3,356 [29.4]	2,238	1,786	846	1,125
2020	3,335 [29.4]	2,079	1,800	915	1,212
2021	3,575 [31.0]	2,234	1,964	1,011	1,342
여성					
2019	4,125 [45.0]	2,547	2,013	2,310	920
2020	4,091 [45.0]	2,529	2,133	2,337	861
2021	4,491 [47.4]	2,938	2,573	2,502	936

주: 1) 괄호 안에 수치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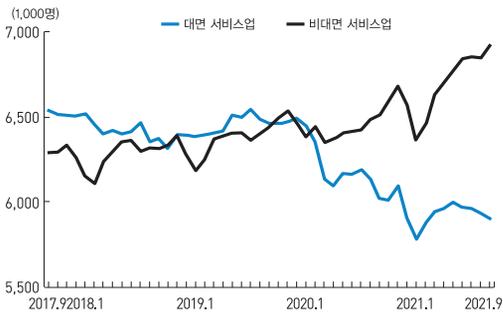


로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모두 한시적(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가 모두 늘었지만, 기간제 및 시간제 노동자 증가는 여성에게서, 비전형 노동자 증가는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산업별 취업자 구성변화를 간략히 살펴보자. 팬데믹 이후 꾸준히 줄어 2020년 7월 435만 명을 밑돌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20년 4/4분기 이후 반등되어 2021년 3월 440만 명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그림 V-8]의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잘 알려진 것처럼, 도소매,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 서비스와 운수/창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통신업을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 취업자 수의 명암이 확연히 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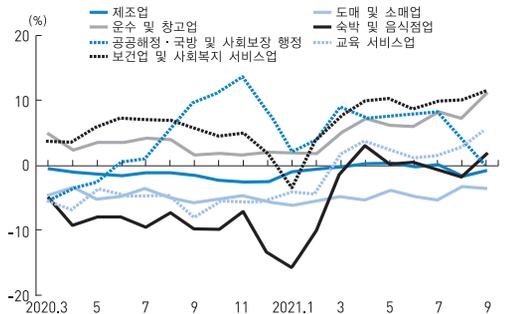
[그림 V-8]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업의 취업자 변화, 2017.9-2021.9



주: 1)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매 및 소매업(G)+숙박 및 음식점업(H)+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2) 비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운수 및 창고업(I)+정보통신업(J)+부동산업(L)+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그림 V-9]에서 명암이 갈린 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 이전까지 코로나19 국면 내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경기 흐름에 거의 관계없이 취업률 악화가 유지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2021년 1월에는 전년 대비 15% 이상의 취업자 감소률을 기록했다. 그 뒤를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뒤따르고 있다.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은 E-러닝이나 E-이커머스 등 비대면 사업이 혼합되기도 해서 타격이 다소 완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V-9]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3-2021.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반면, 다소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운수 및 창고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사회보장행정 분야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려 2019년 동기에 비해 취업자가 늘어난 분야였다. 특히 중고령 일자리는 2020년 하반기 공공행정 분야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의 확대에 크게 힘입었다.

노동시간과 유연근로

2020년 3분기에서 2021년 3분기까지의 노동시간 현황을 2019년 동분기와 대비해 살펴보면, 가장 현저한 변화는 4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54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36-44시간 노동이 크게 늘었다. 기업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실천이 장시간 노동의 축소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축소는 1-2시간에 불과해,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고용나누기 조치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취업자와 18-35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추세에도 주목을 요한다. 2021년 1/4분기의 경우 2019년 동기 대비 약 39만 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가 발견되었다. 노동시간 축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를 반영한다. 또한 앞서 잠재구직자와 관련

해서도 언급했듯이, 하나의 일자리만으로는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전할 수 없는 노동자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여러 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돌봄 책임이 있는 근로자 지원, 고용조정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이전 지난 5년간 유연근무제 활용은 정부 정책과 노동자 요구로 차츰 확대되어 왔으나 증가세는 완만했다. <표 V-5>가 보여주듯 2015년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노동자는 약 5%에 불과했고, 2019년에 그 비중이 약 11%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4.2%, 2021년 16.8%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빨라졌는데, 그중에서도 비대면으로 일하는 재택근무 활용은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2020년 유연근무를 사용한 근로자 중 17.4%가 재택근무 경험을 보고했으나, 그 비중이 2021년 32.3%로 크게 늘어 비대면근무가 앞으로도 확대

<표 V-4> 노동시간별 노동자 수 변화, 2020.3/4-2021.3/4

	(1,000명)				
	2020년		2021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1-17시간	97	94	389	374	303
18-35시간	-976	523	575	598	492
36-44시간	1,248	107	805	975	788
45-53시간	-370	-917	-991	-875	-524
36시간 미만	-878	617	963	972	795
54시간 이상	-580	-519	-1,076	-917	-797
주당평균취업시간(시간)	-0.9	-1.4	-2.2	-1.7	-1.3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기 대비 변화(1,000명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분기.

<표 V-5> 유연근무제 활용률, 2015-2021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1,000명)			유연근무제 활용률 (%)	유연근무 활용자 중 재택근무제 활용률 (%)
	전체	활용함	활용하지 않음		
2015	19,474	902	18,572	4.6	7.3
2016	19,743	823	18,920	4.2	7.3
2017	20,006	1,041	18,965	5.2	5.6
2018	20,045	1,675	18,370	8.4	4.7
2019	20,559	2,215	18,344	10.8	4.3
2020	20,446	2,898	17,548	14.2	17.4
2021	20,992	3,534	17,459	16.8	32.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될 전망임을 암시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업자 구성변화 및 노동시간 변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플랫폼 노동의 확대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새로운 노동의 형태로 증가 추세를 보여온 플랫폼 노동은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로 크게 확산되었다.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대규모 조사를 통해 15-64세 취업자의 약 0.92%, 22만여 명의 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고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플랫폼 노동자로 추산했다. 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의 절반 이상은 배달 운송이 차지했다. 또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약 46%는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정도로 일했지만,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경우에는 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30%에 달했다(40-52시간 미만 취업: 약 21%).

임금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월평균 임금총액은 352만 7천원이었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은 0.5%에 그쳤다.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율은 2.2%로 전년 대비 1.9%p 하락했다. 여기에, 특별급여 감소폭이 확대되어 2011년 이후 가장 저조한 전년 대비 0.4%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0년 임시,일용직의 임금 상승률은 7.8%로 전년 대비

1.6%p 상승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임금(2020년, 163만여 원)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등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 통계라 볼 수 있다.

한편, 직종별 임금과 성별 임금 격차는 예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관리직, 판매직 등에서 임금 상승률이 평균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타격이 가장 컸던 서비스직의 경우 월급여액에서 전년 대비 임금 하락이 발생했다. 노동시간 축소와도 관련있는 결과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0.2%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서비스직, 장치/기계/조립직, 관리직, 판매직 등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하락이 초래되기도 했다.

〈표 V-6〉 직종별 임금 및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 2019, 2020

	월평균 임금총액(천 원)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2019	2020	상승률 (%)	2019	2020	증감 (p)
전체	3,720	3,757	1.0	66.1	66.3	0.2
관리직	9,829	10,385	5.7	80.1	79.1	-1.0
전문직	4,221	4,347	3.0	62.6	62.6	0.0
사무직	4,131	4,185	1.3	67.4	68.7	1.4
서비스직	2,114	1,928	-8.8	67.0	64.4	-2.6
판매직	3,223	3,399	5.5	61.3	61.1	-0.2
가능직	3,360	3,480	3.6	61.4	63.0	1.6
장치·기계조작·조립직	3,421	3,405	-0.5	79.0	76.5	-2.5
단순노무직	2,197	2,199	0.1	76.1	76.9	0.8

주: 1) 상승률(%)과 증감(p)은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표 V-7〉의 근로형태별 임금 변화를 보면, 2021년 현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3.4% 상승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중 비전형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표 V-7〉 근로형태별 임금 변화, 2020-2021

	2020.8		2021.8	
	월평균 임금 (1,000원)	증감률 (%)	월평균 임금 (1,000원)	증감률 (%)
임금근로자	2,681	1.4	2,734	2.0
정규직	3,234	2.2	3,336	3.2
비정규직	1,711	-1.0	1,769	3.4
한시직	1,857	-0.2	1,871	0.8
기간제	1,877	3.9	1,888	0.6
비기간제	1,741	-15.9	1,751	0.6
시간제	903	-2.6	916	1.4
비전형	1,854	-0.2	1,967	6.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6-8월) 간 평균 임금임.
 2)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V-8〉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9.4%, 건강보험 77.0%, 고용보험 75.2% 등이다.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88%를 상회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그 비율이 50% 수준이거나 미만으로 고용형태별 격차가 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보험 가입률이 2020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적 용역형 사업소득

과 기타소득의 매월 제출 의무화가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표 V-8〉 사회보험 가입률, 202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	증감 (%p)	가입률 (%)	증감 (%p)	가입률 (%)	증감 (%p)
임금근로자	69.4	-0.4	77.0	0.3	75.2	2.6
정규직	88.8	0.8	93.6	1.0	90.9	1.7
비정규직	38.4	0.6	50.3	1.3	52.6	6.5
한시직	50.1	-0.4	65.2	0.0	62.0	2.0
기간제	53.0	-0.8	69.1	-0.7	64.4	0.8
비기간제	28.9	-2.5	37.7	-0.8	44.5	5.1
시간제	21.0	0.5	29.5	0.6	31.3	3.5
비전형	17.7	0.5	31.1	1.7	43.8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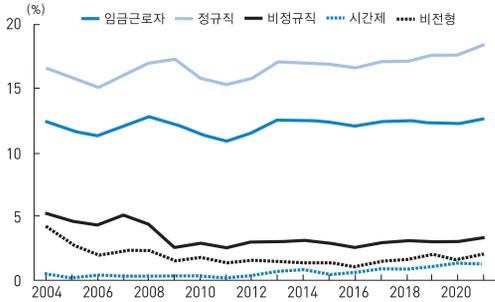
주: 1) 증감은 전년 대비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1.8.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사분규

[그림 V-10]이 보여주듯, 2021년 노조 조직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12.6%로, 2016년 이후 지속된 증가세가 위기와 함께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복원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만 7,622명, 전국교수노동조합 631명 등 공무원 및 공공부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공무원부문 조직률(86.2%)은 3.5%p 증가, 중앙공공기관 조직률(70.5%)은 1.9%p 증가한데 비해 민간부문 조직률은 10.0%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한국노동연구원, 2021).



[그림 V-10]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2004-202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편, 2020년에는 일부 대기업의 파업으로 손실일수는 전년 대비 다소 늘었지만 (402일에서 554일), 코로나19 위기로 전년 대비 25.5% 줄어든 파업을 비롯해 단체행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로 노조 활동에 제약이 컸던 탓이다. 특히 상반기 분규건수는 24건으로 지난 5년여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위기의 장기화 국면에서 고용조정이 가시화될 경우 분규증가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참고문헌

한국노동연구원. 2021. 「월간 노동리뷰 2021년 1월호(통권 제190호)」. 한국노동연구원.